

남 북 협 력 동 향

(2006.1.1 ~ 3.31)

■ 북한에 외화전용 전자화폐 통용(1. 4 아사히 신문)

-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에서 IC카드 방식의 외화전용 전자화폐가 처음 등장했다고 보도
 -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산하 동북아시아은행이 개발한 '신용카드'라 불리는 전자화폐가 지난해 가을부터 통용
 - 이 카드를 1장당 2유로에 구입하여 외화를 입금하면, 그 금액만큼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- 현재 평양의 경우 외화전용 식당과 백화점 등 약 20개 점포가 이 카드를 취급

■ 북한 경수로 체류 인원 전원 철수(1. 8 통일부)

- 경수로 공사 중지 후, 시설물 유지 등을 위해 북한 경수로 부지에 체류하고 있던 근로자 등 인원 57명이 8일 전원 철수
 - 작년 11월말 사업종료를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, 북한은 경수로 체류 인원이 전원 철수할 것을 요청
- KEDO는 조만간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수로 사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
 - 공사 참여업체들에 대한 위약금, 피해보상금 등 2,000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 청산 비용 등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중
 - ※ 경수로 사업은 '97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15.7억달러가 투입되어 34.5%의 공정률을 기록, 이중 우리 정부는 총금액의 약 70%인 11.3억달러 부담

■ 김정일 중국 방문(1.10~13 연합)

- 김정일 위원장은 9일 평양을 출발,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.
 - 김 위원장은 단둥과 선양을 거쳐 남부 도시인 상하이와 광저우, 선전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
- 금번 방중 목적은 6자회담 재개 방안 및 미국의 금융제재 완화 등에 대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
 - 한편 북경이 아닌 남부지역을 우선적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금번 방문은 7.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은 제2의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■ '05년 남북 항공기·선박 운항 급증(1. 12 통일부)

- 2005년 남북간 항공기 운항 208회, 선박 운항 4,497회로 급증
 - 항공기 운항 횟수: 총208회, 2004년 대비 7.4배 증가
 - 남→북 102회, 북→남 106회,
 - 선박 운항 횟수: 총4,497회, 2004년 대비 111.7% 증가
 - 남→북 2,228회, 북→남 2,269회,
- 선박 운항은 북한산 모래 반입 급증으로, 항공기 운항은 남북교류협력 증가 및 10월 평양 '아리랑 축제' 관광객의 전세기 이용으로 급증

■ 손실보조한도 상향조정(1. 18 통일부)

- 통일부는 손실보조한도 등이 규정된 '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'을 개정, 1.18부터 시행
 - 우리 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커버하는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를 100~150% 상향조정하고, 신청요건을 완화
 - 대북투자 손실보조 약정한도 : 20억원 → 50억원으로 상향 조정
 - 남북교역 손실보조 약정한도 : 5억원 → 10억원으로 상향 조정
 - 해당사업 종사 경력 : 3년 → 1년 이상으로 완화
 - 민원사무 기금지원 결정기간 : 원칙적으로 30일로 명시

- 또한, 업무별로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, 사업 선정에서 사후평가 등의 제반 업무를 검토, 기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

■ 북한,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 전망(1. 19 서울경제)

-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주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주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개성과 신의주, 금강산, 나진·선봉 등 4대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
- 또한, 이 차관은 북한은 4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놓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, 북한의 추가 경제특구 지정 가능성을 시사
- 북한 전문가들도 2000년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전후로 경제 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던 점 및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

■ 2005년 남북교역 동향(1. 23 한국무역협회)

- '05년 남북교역은 '04년보다 51.5% 증가한 1,056백만달러를 기록
- 1991년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14년만에 10배인 10억달러를 돌파(남한 전체무역의 0.19%)
- 반입은 농수산물 및 개성공단 생산품의 반입 증가, 의류 임가공 증가에 힘입어 '04년 대비 31.9% 증가한 340백만달러를 기록
- 반출은 비료·식량 지원,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자재·장비 반출로 '04년 대비 63.0% 증가한 716백만달러를 기록
- 교역수지는 명목상으로 남한이 375백만달러의 흑자이나, 실질 교역수지는 남한이 221백만달러 적자를 기록
- ※ 실질 교역수지 = (위탁가공 반입 - 위탁가공 반출) + (단순물자 반입 - 단순물자 반출)
- '05년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 수는 일반교역 379개 업체이며, 위탁가공교역 136개 업체
- 업체당 평균 거래실적은 일반교역 554천달러, 위탁가공업체 1,542천달러임.

연도별 남북교역 추이

(단위: 백만달러, %)

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
반 입 (전년대비 증가율)	152 (49.4)	176 (25.3)	272 (54.2)	289 (6.5)	258 (△10.8)	340 (31.9)
반 출 (전년대비 증가율)	273 (28.8)	227 (△16.9)	370 (63.2)	435 (17.5)	439 (0.9)	715 (63.0)
계 (전년대비 증가율)	425 (27.5)	403 (△5.2)	642 (59.3)	724 (12.9)	697 (△3.8)	1,055 (51.5)
상업거래(비중)	256(60)	244(61)	355(55)	425(59)	437(63)	690(65)
비상업거래(비중)*	169(40)	159(39)	287(45)	299(41)	260(37)	365(35)
일반 교역업체 수	386	369	333	380	364	379

* 정부 및 민간의 북한지원 물자 반출

■ 북한 경제 7년 연속 플러스 성장 (1. 24 통일부)

- 통일부는 2005년 북한 경제가 농업 및 철도운수 부문 등의 성장에 힘입어 1999년 이후 7년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평가
 - '05년 곡물생산은 양호한 기상여건과 인력 및 영농자재의 집중 투입으로 '04년보다 5.3% 증가한 454만톤을 기록하였으나, 대외지원이 없으면 식량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
- 전년도 경제정책은 '02년 7·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난 물가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 심화에 따른 '정책적 숨고르기 시도'로 평가
 - '05년에 북한은 배급제도 부활과 시장내 곡물 판매금지 등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시도
- 통일부는 '06년 북한경제에 대해 외화부족과 배급제 시행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재정 및 금융 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
 - 아울러 민족공조 논리를 내세워 남한에 대한 경제지원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

■ 북한 내각, 2006 경제운용 발표(1. 28 연합)

- 북한은 1월 26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열어 경제운용 방향 논의
 - 농업 증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력, 석탄, 금속, 철도, 운수 등의 기간산업에 역점

- 연초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선전, 광저우 등 경제특구 방문의 성과를 경제 개혁과 개방에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.

○ 세부 계획

- 농업 : 식량 증산을 위한 농기계, 영농물자 공급 확대와 농지 면적 확대를 위한 독 공사 등 “새땅찾기사업” 지속 실시
- 공업 : 전력, 석탄, 금속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며 물류난 극복 위해 철도 운수사업에도 총력
- 개혁 : 경제 현대화에 우선투자 강조, 젊은 기술관료 중심의 세대교체 가능성 제시

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· 직업훈련센터 건립(2. 9 관리위원회)

-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2009년까지 펼쳐지는 개성공단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종합지원센터와 직업훈련센터를 건립
- 종합지원센터 현황
 - 규모 : 연면적 9,000여평
 - 예산 : 전체 소요예산 570억원(올해 설계예산 34억원)
 - 완공예정년도 : 2009년
 - 입주기관 :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(남한),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(북한), 경험사무소, 컨벤션센터 등
- 직업훈련센터 현황
 - 규모 : 연면적 3,300여평
 - 예산 : 198억원
 - 완공예정년도 : 2007년

■ 북한, 해외주재 대사를 경제관료로 교체(2. 10 중앙일보)

-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주재 대사를 무역·경제부문 관료로 교체하도록 지시
- 1차적으로 러시아, 독일 대사를 무역성 고위 간부로 교체할 예정
- 이는 지난달 10~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·개방 움직임과 관련

- 이같은 인사는 위폐문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적극적 경제외교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전문가들은 해석

■ 정부, 대북 5대 신경협사업 추진(2. 14 통일부)

- 통일부는 14일 농업, 수산업, 임업, 경공업, 광업 등 5대 신경협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
 - 세부 계획
 - 농업 : 일부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지원
 - 수산업 : 서해 공동어로 사업에 역점, 동해 공동어로도 병행
 - 임업 : 양묘장 조성·병해충 방제 등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
 - 경공업 : 의복·신발·비누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형태로 지원
 - 광업 : 경공업 협력과 연계,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 협력 추진
- 3대 경협사업(개성공단 건설, 철도·도로 연결, 금강산 관광)이 확대·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 외연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

■ 마카오 BDA 대북거래 중단(2. 16 연합)

- 미국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(BDA)은행은 16일 북한과 거래 중단 성명을 발표
 - 거래 중단은 미국 재무부 조사관들과 협의 후 내린 결정이며 새로운 돈세탁 방지 정책과 세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
 - BDA는 향후 북한 당국은 물론 북한 관련 법인과도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
-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BDA에 대한 제재 가능성 거론 이후 북한의 금융시스템과 대외무역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
 - ※ 작년 9월 미국은 북한 당국의 위조 달러 거래와 연루되었다며 BDA를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불법거래 지원 혐의대상자로 지정

■ 북한, 쌀차관에 사의 표명(2. 21 통일부)

-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(경추위) 북측위원장은 작년 우리측의 쌀 50만톤 제공이 성공적으로 완료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한 통지문을 경추위 남측위원장에게 보내음.

- 작년 정부는 「남북한 쌀차관 제공합의서」(2005.7.12)에 따라 국내산 40만톤과 태국산 10만톤 등 총 50만톤의 쌀을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제공

■ 북한에 비료 15만톤 제공(2. 22 통일부)

- 정부는 북한의 45만톤 비료지원 요청에 대하여 우선 15만톤을 제공하기로 발표
- 이는 비료의 적기 지원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완화시킨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고려된 것임.
- 세부 계획
 - 수송경로 : 해로 및 육로를 통해 수송할 계획이며, 첫 수송선박은 28일 여수항에서 출항
 - 비료 비중 : 복합비료, 요소비료, 유안비료 등
 - 비용 : 운송비 포함 약 590억원
- ※ 2005년 정부는 35만톤(약 1,200억원)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함.

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,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의결(2. 27 통일부)

- 정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안건 등을 심의·의결함.
- 주요 안건
 - 개성공단의 전력·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과 KT에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자금 787억원 대출(한국전력 410억원, KT 377억원)
 - 대출조건 : 7년거치 13년 상환, 연리 2%
 - 한국관광공사가 요청한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을 승인
 - 대출조건 : 3년거치 5년 상환, 연리 4% → 1년거치 10년 상환, 연리 2%
 - 남북협력기금 '자산운영지침' 개정안 의결
 - 북한에 비료 15만톤 지원

■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(2. 27 대한적십자사)

- 2.27~28 양일간 남북 각기 40가족씩 총 80가족이 상봉하는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

- 1일 4회 상봉 시간대별로 남북 동시 10가족이 상봉
- 남측의 9개 도시, 13개 상봉실과 북측의 평양시, 10개 상봉실 연결

■ 남한, 북한에 북관대첩비 인도(3. 1 연합)

-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만인 작년 10월 남한으로 귀향한 북관대첩비가 3월 1일 북한에 인도됨.
- 북관대첩비 인도는 향후 남북화합과 일본이 소장한 우리 문화재 반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
 - ※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인 정문부 장군이 왜군을 격퇴한 공로를 기리어 1709년 함경도 길주에 건립한 비

■ 북한-중국, 나진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(3. 10 조선일보)

- 중국은 북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에 대해 50년 동안 개발·사용권을 갖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
- 북한-중국 나진항 공동개발 주요 내용
 - 북한의 원정~나진항 고속도로(67km) 건설
 - 나선시내 5km² 부지 종합개발 및 공단 건설
 - 나진항 3호 부두 개조 및 4,5,6호 부두 신설
 - 원정~나진 고속도로변 종합서비스 시설 건설
-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

■ 경의선·동해선 도로 출입사무소 준공(3. 15 통일부)

- 남북을 잇는 경의선, 동해선 도로의 남측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(CIQ)가 15일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감.

○ 세부 내용

	경의선CIQ	동해선CIQ
위 치	경기도 파주	강원도 고성
규 모	5,290평 / 지상2층 지하1층	4,252평 / 지상2층 지하1층
공 사 비	425억원	548억원
지원가능인원	연간 170만명	연간 260만명

- 출입사무소의 준공은 남북 출입절차의 간소화와 전문화를 통해 남북교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

■ 미국, 북한의 금융제재 관련 제안 모두 거부(3. 15 로이터통신)

- 미국은 7일 북한과의 회동에서 북한이 내놓은 금융제재 관련 4개제안에 대해 모두 거부 방침을 밝힘.
- 이에 따라 작년 11월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의 재개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
- ※ 북한의 4개제안 : 위조지폐 논의를 위한 북·미간 협의기구 설치,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 중단, 북한의 미국내 은행계좌 개설, 위폐감시기술 자문

■ 북·중·러 자유무역지대 추진(3. 16 홍콩신보)

- 홍콩신보는 북한의 나진, 중국의 훈춘,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추진 중이라고 중국 지린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
- 입주업체들에게 무관세 인센티브 제공
- 3국의 노동력과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
- 항만과 도로를 긴밀히 연결
- 북한의 나진·선봉 경제특구와 긴밀한 연계

■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 추진(3. 23 한국산업단지공단)

- 추진 내용
- 공장 설립 기간 : '06. 5 ~ '07. 6

- 규모 : 부지 4,000평, 연면적 8,100평
- 구성 : 40여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6,400평의 공장시설과 기숙사, 교육시설, 식당 등 1,700평의 지원시설
- 산업단지공단은 본 공장이 섬유·봉제 등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■ 경협사무소에서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활발(3. 24 통일부)

- 경협사무소 개소이후 남측 114개 기업, 366명과 북측 민경련 소속총회사 관계자 등 261명이 사업협의 위해 상담
- 사업형태별로는 협력사업(45건), 위탁가공(31건), 일반교역 지원사업(각 12건) 순
 - 특히 위탁가공사업은 섬유류에서 전자전기·IT분야와 농산물 위탁재배·가공 등으로 사업 분야가 확대
- 사업분야별로는 농림수산물(32%), 전자전기제품(20%), 섬유류(15%), 광산물(10%) 순
 - 농림수산업은 단순 농수산물 반입보다 산림조성·계약재배 등이 활발
 - 전자전기제품 상담은 위탁가공사업의 경우 TV, 형광램프 등 단순 가공·조립분야, 협력 사업은 북측 고급인력 활용한 IT분야 상담 활발
- 의류위탁가공 및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실무기술협의회도 3차례 개최
 - 남-북 기업실무자의 직접 협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기 품질관리, 제3국에서의 협의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효과 기대

■ 남북교역 증가세 지속(3. 24 한국무역협회)

- 2006년 1~2월중 남북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34.4% 증가한 1억 2,959만달러 기록
 - 반출 : 개성공단 건설자재·장비 및 현지생산용 원부자재 반출이 증가하였고 의류 위탁가공이 활성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9.8% 증가한 7,443만달러 기록
 - 반입 : 개성공단 현지 생산제품과 위탁가공의류 반입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8% 증가한 5,516만달러 기록

- 교역품목은 전년동기 대비 11.5% 증가한 454개 품목
 - 주요 반출품목은 섬유류(27%), 기계류(17.2%), 광산물(13.3%) 순
 - 의류 가공용 원단 반출 증가,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공장 건설용 자재 및 연료용 무연탄 반출이 증가
 - 주요 반입품목은 섬유류(35.6%), 농림수산물(30.8%), 철강금속제품(11.3%)순
 - 의류 위탁가공 활성화 및 개성공단 현지 생산 본격화로 운동복, 남성바지 및 신발부분품 등의 반입이 증가
- 남북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특히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본격 생산 및 1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건설로 관련 원부자재 반출입 및 완제품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■ 정부, WHO와 북한 지원 관련 약정서 체결(3. 28 통일부)

-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유아 지원을 위해 WHO와 지원 약정서 체결
 - 지원규모 : 2006년부터 2년간 총 200억원 규모
 - 지원금 사용처 : 북한지역 영유아 관련 의료시설 현대화, 건강정보 관리의 개선, 보건 의료 역량강화, 지역사회서비스망 구축 등

■ 미국, 북한기업 지원 스위스사 자산동결(3. 30 미재무부)

-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 회사인 '코하스사(Kohas)' 및 이 회사 대표이사 Jakob Steiger의 미국내 모든 자산을 동결
 - 미 재무부는 코하스사가 북한 군부의 유럽내 기술브로커이며 작년 10월 대량살상무기 확산 연루기업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련봉총회사와 관련있다고 주장
- 이번 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에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뿐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취해졌다는 점에서 주목